“난치병 어린이들에 꿈과 희망을”

태고종 나누우리, 진안서 희망나눔 자선음악회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작은 음악회를 통해 중증어린이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는 국제구호봉사단체 태고종 자비나눔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도산)는 11월 9일 진안군 진안문화의집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희망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자선음악회에 앞서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은 심각한 소아우울증, 선천성 뇌성마비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김지연(가명) 어린이 등 3명에게 치료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자선음악회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용진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도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환아와 그 가족을 위해 성심과 열정으로 준비한 음악과 춤사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음악회를 즐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음악봉사를 꾸준하게 하는 ‘마이산 탑(TOP)밴드’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연 자선음악회는 순창지역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댄스그룹 ‘립업’을 비롯해 ‘앤리미트’와 ‘자비걸스’, 가수 서윤과 탤런트 조주원의 공연으로 희망나눔의 자선음악회를 진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광학원, 수험생 학업 결실 기원

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정광고교서 기원법회

불교종립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은 11월 13일 정광고교 대승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함께 ‘2020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원법회’를 열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응원했다.<사진>



법회에서 덕문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열심히 공부한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지리산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 염려 없이 수능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수험생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날 기원법회에 참여한 수험생 전원에게 ‘수능합격기원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격려했다. 법회는 불교의례에 이어 학생회장과 진학부장의 헌화, 격려선물 전달, 관음정근, 발원문 봉독이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금 마친 송림사 보물 삼존좌상

칠곡 송림사, 개금불사 회향

칠곡 팔공산 송림사(주지 도휘)는 11월 8일 대웅전서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보물 제1605호)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개금 점안불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동화사 前 금강선원장 지혜 스님과 칠곡사암연합회 총무 묘현 스님, 김한수 송림사 신도회장, 이진형 무형문화재 불상조각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송림사 주지 도휘 스님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 전국에 제일가는 기도, 수행, 포교도량으로 거듭나 대구시민, 칠곡군민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거듭나겠다”고 인사했다.

증명법사 지혜 스님은 “생각을 내는 것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다. 본래의 내 마음인가를 생각하고 생각 내는 이전의 내 참마음, 참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림사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은 360여 년 된 불상으로 세월이 지나며 일부 훼손돼 개금이 진행됐다. 송림사는 회향불사에 공로가 많은 공로자들에게 송림사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소로 밝힌 세상, 더 아름답게”

사단법인 미소원, 창립 8주년 기념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봉사와 수행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미소원이 창립 8주년을 기념해 불자 거사들의 모임인 ‘아빠봉사단’을 창단했다. 불자 거사들은 든든하고 힘찬 봉사활동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서원했다.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11월 9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미소원 개원 8주년 기념식 및 아빠봉사단 발대식’을 거행했다. 미소원은 아빠 봉사단을 통해 가족 구성원 포교에 앞장서며, 거사들의 든든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창립 기념식에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 김소양 신도회장, 문연숙 부회장,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이도경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아빠봉사단과 미소원 청년회가 회기를 장유정 이사장에게 전달하며 시작을 알렸다. 이어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내빈소개,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공로패 수여, 기금전달식, 인사말 및 축사, 후원단체 소감,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미소원은 장정화 아빠봉사단 단장과 허세진·조현삼 부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한 아버지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화 신임단장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미소원의 뜻을 받들어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주년 맞아 ‘아빠봉사단’ 창단
불자 거사들 활동 지원 나서
소외계층 지원 우수활동 표창
현대불교에 전법지원금 전달

이어 미소원은 조정헌(평화시장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회원 허중구·강주은 부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치하했다.

아울러 미소원은 기금전달식에서 전법 지원금 500만원을 현대불교신문에 전달하며 수행 포교지로 더욱 힘차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불교신문은 감사의 답례 선물을 전달하며 미소원 창립 8주년과 아빠봉사단 창단을 축하했다. 미소원은 또한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에 난치병환우돕기 지원금 747만5120원을 전달했다. 난치병환우 돕기 지원금은 미소원 회원들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저금통으로 마련한 것이다.



사단법인 미소원 개원 8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빠봉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은 모든 활동에 앞서 수행을 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봉사와 후원으로 따뜻한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이번 아빠봉사단 창립으로 새로운 도약점을 맞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어둡고 외로운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 준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미소원이 존재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미소원 창립을 축하하며 승가 및 재가자의 축사도 이어졌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뵙고 왔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미소이다. 그 미소를 보고 왔다. 이곳에서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있다”고 칭찬했다. 스님은 이어 “미소원 여러분의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을 주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미소원은 행복을 주는 삶으로 자신도 행복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해줬다. 이것이 미소원의 가치”라고 말했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행사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미소가 가득한 행사는 처음 봤다. 아빠봉사단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곳의 행복 가득한 미소를 담아 다시 돌아가 전법 활동을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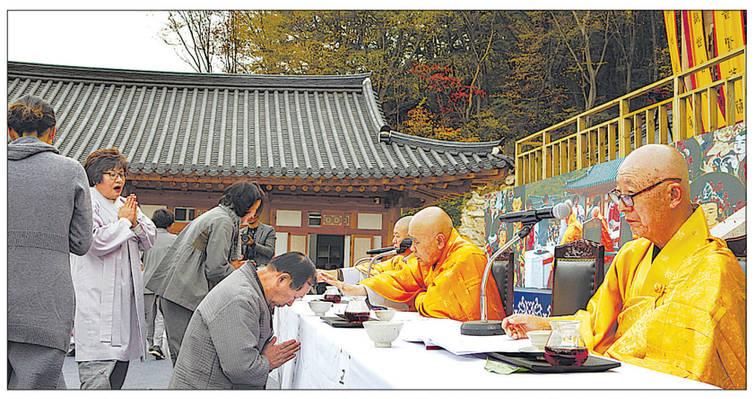
持戒 강조한 전통불교의식 팔관회

부산불교연합회, 범어사 일대서
1000여 시민과 호국불교 서원

부산 시민들이 팔관회를 통해 부처님의 계를 받아 지니며 청정한 삶을 서원하고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팔관회를 현대에 맞게 재현해 호국불교정신과 계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고 전통불교문화를 이어가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8~10일 팔관회를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팔관회는 호국기원법회를 통해 호국불교정신을 되살리고 팔관회가 갖는 전통불교문화 가치를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팔관회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팔관재계를 수지해 하루 동안 지킬 것을 서원하는 전통불교의식”이라며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주관한 성대한 행사이자, 왕과 대신들이 법을 청해 듣고 계를 수지하는 대법회로 역사 속에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에서 회장단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마정수기를 하고 있다.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은 “부산불교가 앞장서서 우리 민족 전통인 팔관회의 문화적 가치와 불교의 정신을 되살린다면 능히 국민들의 마음에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고 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팔관회는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국가적 행사로 국왕이 재주가 되어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0여 년간 팔관회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형보존과 아울러 현대적 시선에 발맞춰 일반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팔관회는 호국기원법회에 이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려 즐기고 볼 수 있는 백희가무를 선보였으며,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열사들을 추모했다. 마지막으로 팔관재계수계법회를 통해 팔관회가 핵심인 계의 정신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팔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진광 정사를 비롯한 구·군 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0年 庚子年 福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 출시!

“같은 옥으로 만들어진 福 달력”

같은 福자 글씨는 옥으로 만들어진 돌출형이라 입체감이 있어 매우 품격있고 고급스럽습니다!



佛보살님들의 발원으로 福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대박 달력입니다. 날짜마다 길흉표기를 해두었고, 사찰의 행사 날짜 별로 기록되어 있어 사찰신도들에게 유익한 달력입니다.

他 사찰과 색다른 달력을 배포함으로써 신도 유입에 도움이 되리라 사려됩니다.

※달력 하단에 각 사찰명을 인쇄해 드립니다.
※주문은 50부 이상 받습니다.

재수대길 재수대길기획사 문의 전화 010-7462-2557 입금 계좌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김 경 석